

양계단지 조성현황과 운영실태

□ 취재/김종준 기자

본고는 최근 전업농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계단지 중 채란 양계단지의 현황과 방역실태, 계란유통, 계분처리에 관한 내용을 취재하여 정리한 것이다.

1. 단지 조성 현황

'91년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한 양계단지는 98년을 기점으로 단지 신청은 마감하고 '99년부터는 시설자금지원보다는 경영자금지원으로 단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방법을 달리 할 것으로 보인다. '96년 현재까지 조성된 산란계 양계단지의 총 사육규모는 4,789천수이고 참여 농가수는 142호이다.

단지에 투자된 자금 규모는

63,827백만원으로 지방비 1,990백만원, 보조 668백만원, 융자 31,317백만원 부담 29,883백만원이다.

지역별 단지 분포는 경기2개소, 경북

6개소, 경남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4개소, 제주 1개소로 총 17개소이다. '98년부터 단지 지원자는 단지 구성원의 개별운영을 제외시키고 공동사육단지만 신청할 수 있다. 단지 구성요건

중 참여농가수는 5호이상에서 3호이상으로 단지 참여 농가호수를 줄였다. 법인체의 경우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표1. 산란계 양계단지 현황

지역	설립년도	단지명	참여 농가수	사육규모 (천수)	비고
경기	94	파주	5호	150	
	95	자연(육영축산)	6호	150	영농법인
경북	91	봉화	13호	666	
	93	소백(푸른축산)	12호	680	영농법인
	93	감문	6호	140	
	93	동원	10호	323	
	95	내남(청록은)	10호	300	영농법인
경남	95	가음	10호	300	
	92	산청	10호	300	
전북	94	합양	10호	300	영농법인
	96	수정	8호	160	
전남	96	가나안	7호	100	
	92	화순	10호	300	영농법인신청
	92	공산	9호	300	
	93	함평	5호	150	
제주	96	삼서	5호	160	
	94	북제주	5호	300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으로 구성원의 2/3이상이 해당분야 사육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단지에 참여할 수 있다.

2. 방역체계 일원화의 필요성

단지는 계사가 밀집되어 있어 질병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 그러므로 단지 조성시 방역시설과 방역프로그램 운영은 단지조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단지에서 방역 관리가 일관적으로 철저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단지 운영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개별운영 단지는 사료, 중추구입, 약품, 계란판매처가 각 농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종 출입차량에 의해 수평적 질병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단지 입구에 설치한 출입차량소독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아예 소독시설이 없는 단지도 있다. 질병 발생시 공동 대처할 방역단 구성은 생각할 여력도 없을 뿐만아니라 구성원간에 정보전달이 차단되어 인접해 있는 다른 계사의 질병 유·무

에 관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공동운영 단지는 개별운영 단지보다 방역팀 구성과 방역시설 이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단지 사무실을 단지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영하고, 단지 모습을 비디오에 담아 방문객이 직접 계사를 출입하지 않고도 단지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여 외부질병 유입을 막는다. 또한 질병방역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방역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가고 있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3. 합리적인 계분처리 방안 모색이 중요

계분을 소득원으로 이용하려면 발효·건조도 중요하지만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물론 지역의 특성상 상품으로 판매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원예단지, 과수단지 등의 판매처를 개척한다면 계분처리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파주 양계단지의 경우 인근에 원예단지와 강원도 채소

단지에 유기질비료 22Kg당 1,800 ~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소비시장의 가격이 3,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어 유기질비료에 대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판매가격을 한층 높여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주 푸른축산도 포대당 2,000원에 거래하고 있어 계분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단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톱밥비용이 비싸고 계분처리장 설치에 따른 비용과 계분발효기, 로더 등 부대시설에 드는 비용이 최소 1억 원에서 최고 25억까지 들어 자본이 영세한 단지는 계분가공 시설 설치에 어려운 단점이 있다.

4. 계란 유통체제는 제자리 걸음

양계단지의 계란 출하는 집하장 출하, 군납, 상인에게 판매, 난가공공장 출하형태로 분류된다. 출하 물량이 많은 단지의 경우 집하장에서 취급 물량을 상회하고 있어 도매상인과 거래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조사한 양계단지 16개중 90%에 이르는 단지가 상인과



△ 계란위생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단순 선별기능에서 세척, 건조, 코팅까지 가능한 선별기로 대체하고 있다.

거래하고 있는데 거래상인 수가 단지당 적게는 10개소에서 많게는 30개소에 이르고 있다. 산란계 양계단지에서 계란집하장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물량이 많다는 원인이 있지만 계란을 세척, 건조, 코팅단계까지 단지가 직접 처리하므로 굳이 집하장에 출하하여 이중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일 생산된 계란을 직접 도매상인에게 수송해 주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과거의 생산 체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유통에도 참여하고 있다.

계란 생산량이 과잉되어 계란이 체화되면 계란출하 가격

의 할인은 양계단지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여파로 기존의 할인폭의 증가와 이중 가격 형성은 계속 될 것이라며 일부 일반농가에서는 양계단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 시설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바람직

단지 운영의 애로점은 첫째, 참여 농가간의 단결이 어려워 단지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를 개별 농가별로 처리하다 보니 단지로서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단지를 공동운영하는 단지는 방역에서 사육, 계분처리, 계란 판매, 전산화 등 단지 제반 생산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회의를 걸쳐 풀어 가고 있다.

둘째, 단지 조성 당시 건물을 공동 등기로 되어 있을 경우 단지 참여농가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건물에 대한 분할 등기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계사 설치시 너무 외국 기자재에 의존하다 보니 관세 및 통관비, 부가가치세 등의 지출이 과다하여 단지 경영에 필요한 경영비가 부족하다.

넷째, 시설의 자동화는 모든 양계단지에서 구축되어 있지 만 전산화에는 아직도 계사온도 측정, 음수량 측정, 사료량 측정 등에 그치고 있고 농장의 투자분석은 시도하지도 않았거나 시험단계에 불과하다. 다섯째, 정부의 시설 지원 금액이 '95년까지 3년거치 7년 상환 이자율이 5%로 되어 있지만 시설투자액이 워낙 많아서 10년이란 기간은 지원금을 갚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96년 이전에 자금지원을 받은 단지에 한해서는 '96년 신규 양계단지 신청자와 같은 조건인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양계**